

宋 구속·李 신당·한총련 파동에 광주·전남 ‘총선 소용돌이’

돈봉투 수사 칼끝 수수자로 향할 듯...광주·전남 일부 휘말리나 신당 속도조절론 속 반대여론 거세...제3지대 vs 반명 빅텐트 촉각 한총련 고문치사 일부 출마자 연루...공천 등 총선 변수 급부상

이낙연 신당 창당설과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 '한총련(한국대학총학생회합) 고문치사 사건' 파동으로 민주당 심장부인 광주·전남 지역정부가 연말 총선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다. 관련자 대부분이 광주·전남에 정치적 기반을 두고 있어 공천 경쟁 등 총선레이스에도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지역정가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 유정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송 전 대표에 대해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하고, 당 대표 경선과 관련한 금품수수에 관련한 점이 소명되는 등 사안이 무겁고, 증거인멸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 측은 “정치 탄압” “별건, 만지털이, 정치 수사”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지만 핵심 관계자가 구속되면서 수사의 칼 끝은 소위 '300만원 돈봉투'를 받은, 수수 의원들을 향한 전망이다.

검찰은 국회 압수수색과 출입기록 분석 등을 통해 10명 안팎의 현역 의원에 돈봉투가 전달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으며, 광주·전남에서는 3~4명의 현역 국회의원이 수수 의혹에 휘말린 상태다.

수수자로 지목된 일부 의원은 “누가봐도 (송 전 대표에 대한) 공개지지자인데 돈을 받아 이유가 있겠느냐”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으나 현역 심판, 물갈이론에 ‘돈봉투 리스크’까지 더해질 경우 총선 판도에 적잖은 파동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신당” 창당설도 지역 정가에 충격과를 주고 있다.

혁신을 전제로 이재명 대표와 ‘조건부 대화’에 나설 수 있다며 한 발짝 물러선 모양새지만 신당 반대 목소리와 부정적 여론은 여의도 정가는 물론 이 전 대표의 정치적 기반인 광주·전남에서도 연일 이어지고 있다.

현역 의원들과 전남지사, 민주당 고문단에 이어 전남엔 광주·전남 총선 출마예정자 20명이 공동 성명을 통해 “정치적 반란행위”이자 “배신 행위”라며 집단 반발했다.

이들은 “민주당에서 수십 년간 따뜻한 아랫목은 다 차지하며 온갖 호사를 누렸던 분이 검사독재 심판이라는 시대정신과 대의명분을 저버린 채 사익을 좇아 신당 창당을 하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지금이라도 분열의 발걸음을 멈춰야한다”고 밝혔다.

당내 우군화 작업이 한계에 부딪힐 경우 기존 신당 추진세력과 제3지대 연대를 모색할지, 친이낙연계 인사를 중심으로 반(反) 이재명계 빅텐트를 칠지, 총선을 100여 일 앞두고 이 전 대표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997년 한총련 고문치사 사건도 총선 변수

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전남 해남안도진도 출마 예정자인 정의찬 당대표 특보에 대해 당초 ‘공천 적격’ 판정을 내렸다가 고문치사 사건에 연루돼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논란이 되자 곧바로 ‘부적격 처리’했다.

전남대 총학생회장이자 한총련 산하 광주·전남대학총학생회연합(남총련) 의장이었던 정 특보는 1997년 5월 일반인 이종권씨를 ‘경찰프락티’로 몰아 고문·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징역 6년, 2심에서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은 뒤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2년 특별사면·복권됐다.

정 특보 사건의 당시 수사검사는 광주 서구을 출마예정자인 양부남 민주당 법률위원장이었다.

같은 해 6월엔 한총련 간부들이 20대 선반 기능공을 경찰프락티로 지목, 15시간 감금·폭행 후 숨지게 한 소위 ‘이석 치사사건’이 발생했고, 당시 한총련 의장이 광주 서구갑 출마에 정자인 강위민 민주당 당대표 특보여서, 이 역시 논란이 되고 있다. 강 특보는 한때 성추행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지역 정가 일각에서는 “돈봉투 사건의 경우 액수와 배정 등을 떠나 돈거래 의혹만 만큼 최악의 경우 공천 배제까지도 갈 수 있고, 이낙연 신당은 반대 여론이 워낙 거세 실제 창당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출마예정자들 사이에 유·불리 쉐범도 더욱 복잡해질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한총련 사건을 두고는 “관련자나 당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 사안이고, 86운동권 세력 전체로 프레임이 확산되는 경우 배제할 수 없어 요의주시할 대목”이라는 의견이 적잖다. 김수권기자



광주 북구청 대형 성탄트리 설치
광주 북구청 직강어린이집 아이들이 19일 북구청 광장에서 구청 청년간부위원과 함께 성탄절 대형트리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광주 북구 제공)

일상회복 되면서...비만·우울감·음주·흡연, 나쁜 건 다 늘었다

질병청, 올해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공개

코로나19 일상회복으로 올해 신체활동은 더 늘었으나 고혈압·비만, 흡연, 음주 등은 늘어나고 정신건강도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성인 약 23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주요 결과 통계를 19일 이같이 발표했다.

2008년 처음 조사가 이뤄진 이후 고혈압과 당뇨병 진단 경험률은 2018년 일시적으로 감소했던 것을 제외하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당뇨병 진단 경험률은 9.1%로 변동 없으며 지역 간 격차는 8.3%p로 1%p 감소했다. 당뇨병 치료율은 92.8%로 지역 간 격차는 14.7%p 감소한 29.4%로 나타났다.

비만율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비만율

은 33.7%로 전년 대비 1.2%p 증가했고 지역 간 격차는 3.4%p 감소한 21.6%p로 나타났다.

체중조절 시도율은 66.9%로 1.5%p 증가했고 지역 간 격차는 27.6%로 2.8%p 감소했다.

현재흡연율은 최근 2년 연속 증가 양상을 보였다. 일반담배 현재흡연율은 20.3%로 1%p 증가했고 지역 간 격차는 2.6%p 증가한 20%로 나타났다. 남자의 현재흡연율은 36.1%로

0.8%p 증가했고 지역 간 격차도 7.9%p 증가한 37.8%였다.

음주 역시 코로나19가 유행한 2020~2021년 일시 감소했다가 다시 2년 연속 증가했다. 월간음주율은 58%로 0.3%p 늘었고 지역 간 격차도 31.3%p로 7.4%p 증가했다. 남자는 소주 7잔, 여자는 5잔 이상 한 번에 마신 고위험음주율은 13.2%로 0.6%p 증가했고 지역 간 격차도 0.3%p 증가한 16.3%로 나타났다. 고위험음주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남 합천군(21.6%), 가장 낮은 지역은 광주 동구(5.3%)다.

우울감 경험률은 2018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이다. 우울감 경험률은 7.3%로 전년 대비 0.5%p 증가했다. 스트레스 인지율도 1.8%p 증가한 25.7%로 집계됐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를 17개 시·도 단위별로 상세하게 비교 분석한 결과 현재흡연율과 고위험음주율은 세종에서 가장 낮고 강원에서 가장 높았다.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은 충북·경북에서 가장 높고 광주에서 가장 낮았다. 비만율은 대전에서 가장 낮고 제주에서 가장 높았다. 변용일기자

GURYE

지리산의 넉넉함을 담은 인정 가득한 곳

매실 산수유 오이